

지역 소식통

김제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2차 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26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허전부시장을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상반기 월별 집행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시설비 사업 등을 집중관리하여 상반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에 밀접한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소비·투자 부문 집행을 독려했다.

시는 올해 신속집행 목표액을 총 신속집행 대상 사업비의 60%인 3,029억원으로 설정하고, 매월 신속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추진

완주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6일 완주군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량을 폐차(수출할소 포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면 대당 500만원의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완주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차량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한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신청포함)나 지방세 체납차량, 국·공립 시설 지역 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와 사업 안내는 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기자

완주군, 소상공인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경영부담 완화 목적...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공공요금 60만원·사회보험료 지원 등

완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파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별지원은 카드수수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2018년 카드매출액의 0.8%)을 지원한다. 2018년 매출액에 대한 지원은

현재 신청 중이며, 2019년 매출액에 대한 신청은 올해 6월부터 가능하다.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약 16억원을 투입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만원(월 20만원, 3개월)을 정액 지원하며, 신청 접수기간은 4월부터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이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여 215만원 이하(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로자의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정부 지원금 제외)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여만원 정도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올 해 4월부터 12월까지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완주읍 상품권을 70억원 조기발행하고,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완주군은 전국 최초로 마련된 전라북도 긴급추경에 발맞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 전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 인한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청년들에게 킁함, "영농창업 1번지 김제로 오세요"

경영실습 임대농장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도비 21억 확보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는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은 시설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 자기 자본투자 없이 본인의 책임 하에 농산물의 재배기술·생산·유통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창업할 수 있도록 실습농장을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6개소 가운데 김제시가 7개소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지방비 50%의 재원을 전액 도비로 확보하여, 시 예산 부담 없이 사업비 전액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020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공



모사업 대상지는 지난 11일 서면심사를 시작으로 현장평가와 전문가 위원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김제시는 사업 예정지로 쓰일 자체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전국 최다의 청년창업농과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인접해 있는 등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등 사업 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 받아 최종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김제시는 올해 국도비 21억원을 지원 받아 경영실습

임대농장 7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임대농장은 스마트형 온실로 개소당 3억원, 1,200㎡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청년창업농 영농창업 지원사업 등 여러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과 연계해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접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 등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김제시에 정착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농업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김제시 관계자는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수, 여름철 재해우려지역 현장점검

박성일 완주군수가 여름철 자연재난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6일 완주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재해우려지역 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점검반과 함께 신봉 소화천, 재해위험 저수지(오천제), 재해위험 급경사지(군도12호선-용진~소양, 송광 2지구)를 찾아 현장 재해위험 요인들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

고려사항 등을 함께 점검했다. 군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재해대책기간 시작 전인 5월 14일까지 집중관리하고 추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대피계획, 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비상연락망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배수펌프장 2개소와 자동음성통보마을방송 400개소, 산간계곡경보시설 28개소, 재해전광판



4개소를 추가로 점검해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삼성생명 전주연수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환자 및 의료진 200명에게 요리곳간(강은미 대표)은 전통음식 꾸러미를 김제시청을 통해 전달했다.

전통치유음식 후원의 손길

지평선연미향 요리곳간, 생활치료센터에 전통음식 꾸러미 전달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삼성생명 전주연수소 생활치료센터(김제시 금구면 소재)에 지역사회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지평선연미향 요리곳간 10여명의 가족들은 26일 대구지역 코로나 경증환자 및 의료진 200여명이 삼성생명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데 따라 전통 치유간식인 음료(수정과 및 사과즙)와 편강, 현미강정, 김부각 등 꾸러미 200set(시가 200만원)을 김제시청을 통해 전달했다.

지평선연미향 요리곳간 강은미 대표는 "2014년도 김제시로 귀농하여 김제, 완주, 전남완도 등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50여 농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1차 농산물 판매, 제철 반찬류와 장아찌류, 떡류와 가공품류 등을 즉석·제조하여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매출액의 70% 이상이 SNS 매체

를 통해 유통 판매되고 있으며 2019년에도 김제시에 도서 400만원 어치를 기증한 업체이기도 하다.

특히 강은미 대표는 2016년부터 김제시농업기술센터와 인연이 되어 농업인 정보화교육 수료 후 강소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평선 농업인대학의 전통음식 강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지역업체가 맞춤형 전통 치유음식을 후원하게 되어 그 뜻이 의미가 있고 모범사례로 생각한다. 며 이런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지속되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김제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논토양개량제 서둘러 살포 당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에서는 2020년 공급분 논토양 개량제(규산) 5,820M/T를 서둘러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논토양내 비 생육에 필요한 규산함량은 130ppm이나 현재 대부분의 논토양에는 이보다 적은 100ppm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양관리를 위해 3년 1기로 무상공급되는 규산질비료는 비의 조직을 강하게 하고 햇빛을 받아들이는 열면적을 넓혀 탄소동화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질소 등 각종 양분의 이용도를 증대시켜 비료효율을 높이고 또한 병해충의 피해와 도복을 억제시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

이므로 금년도에 공급된 대상지역에서는 마을별로 "토양개량제 살포하는 날"을 지정하여 뿌려 주시고, 마을회관이나 논두렁 주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영기 식량작물담당에 따르면 봄철에 기상조건이 좋을 때 규산질비료를 살포 한 후 일찍 논갈이 작업을 해야만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여 비의 지랑을 좋게함은 물론 토양속에서 분해가 덜된 볏짚 및 벼뿌리 등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건토효과가 높아진다면서 아직까지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않은 농가는 서둘러 살포해야 한다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